

시론

중산층 줄고 있다

불과 일년 전만 해도 중산층임을 자처하던 어엿한 시민들이 하루아침에 '회사부도다' '정리해고다' 하여 일자리를 잃고 '홀리스'가 되어 거리를 배회하는 딱한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이른바 중산층이 그러할진대 저소득층이나 영세시민은 더 말해 무엇하랴.

부자는 불로소득 늘고 서민은 일자리 잃고

우리의 이같은 비참한 현실이 단순히 경제적 측면에만 국한되는 일시적·일과성적인 것이라 한다면 고통과 충격이 이처럼 엄청나게 체감되지는 않을 것이다. 6·25 이후 그 어려웠던 50~60년대의 보릿고개 시절을 살아오면서도 오로지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 하나만으로 허리를 굽고 경제 건설에 매진해 오는데 이르게 된 소중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는 이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데 있다. 홀리스나 영세시민의 생계문제 해결도 우선 당장 시급한 문제였지만, 심각한 문제의 본질은 다른 아닌 중산층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준남 (영인대학교 교수·사회)

우리나라에서는 통념상 매월 평균 2백~3백만원 정도의 소득을 갖는 중소기업인, 자영업자, 월급쟁이 등의 부류를 중산층(middle class)으로 규정한다면 크게 어긋나지 않을 듯 싶다. 국민 일인당 GNP가 1백달러 남짓하던 60년대 불과 20% 정도로 추정됐던 중산층(물론 현재의 중산층과는 소득수준 면에서 많은 격차가 있었지만)은 90년대 중반엔 50%를 넘어섰으며,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서민층까지 합하면 무려 70%에 달한다고 하니, 우리 사회에서 중산층이 갖는 위상과 역할의 중요성은 굳이 재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중산층은 자본주의가 이뤄낸 최대의 결실이자 자본주의 경제를 이끌어 가는 견인차로서, 대체적으로 안정을 희구하고 보수하려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 때문에 사회의 경제발전 수준과 안정성을 가늠할 때 흔히 중산층의 건재 유무가 그 척도로서 거론되곤 한다.

중산층 건재유무 따라 사회·경제안정 좌우

차체에 집권정권에서는 중산층 위기의 실상과 본질을 냉철히 직시하고 재인식하여 종전의 대중요법적 인안일한 대응자세에서 벗어나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어쩌면 중산층 문제에 대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하느냐의 여부가 현행 국민정부의 사활은 물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지만 IMF 관리체제가 들어 서면서 금융자산을 가진 부유층은

고금리 혜택을 누리고 있는 반면 중산층은 부동산 가격의 폭락, 임금 삭감, 실업 등으로 자산과 소득이 감소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최근 환경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1년 이후 부유층 소득의 74% 내지 76%에 달했던 중산층 소득이 임금하락에 따라 올해는 68%, 내년에는 67.7%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부유층 소득의 35%까지 높아졌던 저소득층의 소득도 28.5%선으로 떨어짐으로써 소득격차가 지난 80년대 초반 수준으로 벌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게다가 물가까지 높은 수준이어서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상대적 박탈감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민부의 격차가 심화되면 필수품 계층간 갈등의 골이 깊어져 사회 통합에 적신호가 될 수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일전의 인도네시아 사태에서 보았듯이 경제위기는 곧바로 정치·사회적 기반을 강그리 뒤흔들어 권력의 붕괴는 물론 급기야는 체제의 전복으로까지 비화하는 불씨를 안고 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이같은 사태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김대중대통령은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발전의 병행을 지론으로 피력해 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싱가포르의 이광오 전 총리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중산층의 형성이 전제가 돼야함을 역설함으로써 이른바 '아시아적 가치'에 불을 댕겨 그 귀추가 자못 주목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산층 건재유무 따라 사회·경제안정 좌우

차체에 집권정권에서는 중산층 위기의 실상과 본질을 냉철히 직시하고 재인식하여 종전의 대중요법적 인안일한 대응자세에서 벗어나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어쩌면 중산층 문제에 대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하느냐의 여부가 현행 국민정부의 사활은 물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열린마당

BBS·bfn 살리기

후원회 활성화 불자동참 유도

해담 <스님·불교방송후원회회장>

불교방송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불자들에게 불교방송후원회의 동참을 유도해 후원회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다. 물론 후원회에는 스님들도 포함시켜야 한다. 97년 6월 발족후 재단산하의 정식기구가 된 불교방송 후원회에는 IMF 한과 전에는 매달 7~8백만원 정도의 후원금이 모아졌다. 그러나 금년 3월부터는 후원금이 5백만원 정도로 줄어들었다. 갈수록 후원회는 서울의 7백개 사찰에 편지를 띄워 회원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매달 소식지를 발행해 홍보에 힘쓰고 있다. 이 결과 현재까지 가입된 후원회원은 2천명 정도. 대부분 회원들의 후원금은 5천원에서 1만원선이며 극소수이지만 1천만원을 내는 후원자도 있다.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불교방송이 민고 의지할 곳은 후원회원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불자들밖에 없다. 불교방송 개국 역시 불자들의 지원기금으로 이뤄졌고 불자들의 끊임없는 관심이 있었기에 불교방송이 오늘까지 존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케이블TV 업계의 전반적인 침체와 맞물려 심각한 위기에 놓인 불교TV 후원에도 밝고 나서야 한다. 방송과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나 각종 행사를 이용해 불교계의 공익이 이 두 방송국이 특권인의 소유가 아니라 전 불자들의 것임을 재인식시켜야 한다. 그래서 이 위기를 우리 불자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나서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분위기로 이끌어 가야 한다. 각 종단의 도움도 절실하다. 양 방송사를 살리기라는 오묘한 애정만을 가지고 각 종단과 사찰에서는 무주상보시의 정신으로 적극 후원해야 한다. 이렇게 사부대중이 합심한다면 이번의 위기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BBS·bfn 운영현황

불교방송은 재정수입의 90% 이상을 광고수익에 의존한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월 10억여원에 달하던 광고수입도 IMF한파로 인해 월 3억여원에 채 안되고 있다. 이것마저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3월30일 6국16부 7팀으로 개편하고 29명을 정리해고 하는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또 6월8일 프로그램 개편을 실시해 월 2천만원이 소요되던 제작비를 절반으로 줄였다.

광고 의존 90% 이상 IMF 이후 광고 급감

BBS bfn 개국 5년 부채 46억원 감원·감봉 등 고육책

불교방송의 98년 예산은 131억원. 이중 42억원은 재단전입금인데 이사들의 무관심으로 누적적자가 불가피한 상태. 불교방송은 현재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포교제작팀' 등을 활용해 사찰 및 종단의 협찬프로그램 제작과 사찰광고 유치 등 수익증대에 힘쓰고 있다. 불교TV도 방송국 설립 이후 5년동안 46억여원의 부채를 안고 있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갚아도 힘이 부친다. 98년 예산은 44억2천만원이나 예상수입이 37억8백만원이어서 올해도 7억여원의 적자가 불가피하다. 올해 들어 직원

양사통합 범종단적운영 '대안'

김재일 <보리방송모니터회장>

수차례 거론돼온 의견이지만 현재와 같이 두 방송국이 함께 어려운 상태에서는 통합해 범종단적 차원에서 방송국을 운영하는 것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



불교방송과 불교TV는 라디오와 영상매체라는 차별화된 특성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매스컴을 통한 불법 포교라는 데서는 목적을 같이 한다. 따라서 합병이 된다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폭넓게 공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력 및 시설관리에 투자되는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사찰과 종단에서 협찬하는 광고와 프로그램의 중복도 피할 수 있다. 두 방송국의 방송을 시청 하더라도 반복되는 사찰과 종단 프로그램은 자주 만난다. 또 현재 양 방송사에 소속돼 있는 이사들도 방송국이 통합돼 힘을 합치면 재정기반이 훨씬 더 견실해 지리라 본다. 무엇보다 단일화된 불교방송 매체는 불자들의 후원이나 주시공모 등 재정확보를 위해서 양사를 다 후원해 달라는 반복되는 부탁이 아닌 하나로 명분화된 구원의 손길을 뻗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 재단법인과 주식회사로 회사체제가 다른 양 방송사가 쉽게 통합되기는 어려우리라 본다. 하지만 법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단일매체로서 불자들 앞에 거둔다면 비용절감과 프로그램의 질적 효과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IMF관리 체제에서 교계의 방송매체 뿐만 아니라 타 방송사들도 어려움을 겪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우리 불교계는 교계방송을 사랑하는 신심있는 불자들이 아직도 주변에 많기에 희망이 있다. 이들에게 부처님의 흥법포교에 앞장선 모습을 보여줄 때 방송도 회생할 수 있다.

천만불자 '1천원 후원' 전개

김승희 <한국차생생물문화원회장>

현대인들은 읽는 것에 비해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데 더 익숙해져 있다. 편리한 것을 추구하는 습관이 언제부터인가 생활 깊숙히 침투돼 있기 때문이다. 시대의 흐름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각종 생활정보와 시사소식 등을 제공하는 TV와 라디오는 우리들에게 필수불가결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불교의 포교를 위해 설립된 불교방송과 불교TV는 불자들에게 더욱 더 절실한 매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불자들의 선행과 포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불교방송과 불교TV가 현재 재정수입 등의 감소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두 방송국의 설립 당시 많은 불자들이 발심해 후원하고 격려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와 불자 한 가구당 '1천원 후원모금운동' 같은 대대적인 양 방송사 살리기 운동을 펼쳐야 한다. 부처님께 매달 천원씩 올리는 불전이라 생각하며 양 방송사의 회생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전 불자들이 합심해야 한다. 전국 사찰의 스님들도 불회나 주일 행사 때마다 두 방송국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불자들이 자발적으로 후원모금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이와같은 '1천원 후원모금운동'은 단시간에 실시되는 캠페인성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불교방송과 불교TV의 경영 정상화가 이뤄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나갔으면 한다.

우리 불자들은 국가와 사회, 불교계 등에서 여러가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마음에 새기며 위기를 극복하는데 앞장서 왔다. 이번 양 방송사 살리기 후원운동에도 적극 나섬으로써 불자들의 지력을 과시해 주길 기대한다.



불교방송과 불교TV는 경영난 극복의 일환으로 후원회 모금과 주식공모를 실시한다. 98년 대구경북불교방송 설립후원회 모습.

40여명의 감원, 봉급삭감, 80% 재방편성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재정난을 극복하는데는 별 도움이 안된다. 재정확충을 모색하고 있는 불교TV는 4월 문화사업단을 발족해 삼베수의 판매와 남달당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7월15일~9월15일까지 2개월동안 50억원 규모의 신주를 발행하는 제6차 주식공모를 실시한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BBS 5천원 이상 후원금 입금 bfn 6차 주식공모 동참율

불교방송후원회는 매달 후원회 소식지와 함께 후원금 지로 용지를 발송한다. 금액은 5천원 이상이며 지로용지는 불교방송에서 구할 수 있다. (02)705-5560 이번 6차 주식공모에서 발행되는 불교TV의 신주는 한주당 5천원이며 1인 최저 청약단위는 20주(10만원)로 청약금액은 제한이 없다. 주식청약 지로용지는 불교TV 본사와 전국 사찰 및 각 종단의 총무원 등에서 배부하며 접수수는 불교TV 본사에 서한 받는다. (02)3270-3300

홍화마을 홍화씨로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식품 의약품안전국(F.D.A) 품질공인!! 홍화씨의 효능은 이제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속 홍화씨 작목반 박래환 TEL 053)943-9371 FAX 053)943-9371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영숙(법명: 無生子) 현대정보 결혼연구원 대표전화: (02)634-4910~2 (01)288-4910

윤달수의 전국불교장의연합회 스님, 불자들의 불교식 장례를 전문으로 하는 전국불교장의연합회 장례발생 즉시연락 불교식 장례 종합서비스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한 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 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 천식, 신경성위장병, 신부전증, 관절염, 백혈병 등에 치료됨